

“엔터리 균형정책, 즉각 철회하라”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저지 포천시 쟁기대회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에 대해 포천시 주민들을 비롯한 기관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저지 포천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반월아트홀에서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규탄 포천시 쟁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고조홍 국회의원을 비롯한 박운국 포천시장, 이주석 경기도의원, 이강림 포천시의회위원장, 김인만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및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허구성을 비난했다.

공동대책위원장인 이강림 포천시의회의장은 대회를 통해 “정부는 반세기 이상을 국가안보를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 온 포천시를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적지역에서 성장지역으로 한 등급 상향조정한 우를 범했다”고 역설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또 공동대책위원장인 김인만 포천상공회의소 회장은 “포천지역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산시와 대구시, 대전시 등 광역시와 동일한 성장지역으로 분류한 정부정책은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다”면서 “포천시를 정적지역에서 성장지역으로 분류하게 되면 기업활동을 크게 저해하기 때문에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쟁기대회에 참석한 박운국 포천시장 역시 비행금지구역지정 등 각종 규제에 의해 낙후된 포천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수도권 역차별 정책인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의 허구성에 대해 성토했다.

이에 앞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경과보고에 나선 정준근 포천시의회의 행정자치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작부터 계속 되어온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역차별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책적 고려라는 미명하에 경기도 지역을 1등급 더 불이익을 주는 이번 지역분류 시안을 즉각 폐기하고 보편타당한 계량분석에 의한 지역분류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쟁기대회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60여년동안 모든 희생을 감수해 온 정적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및 정책적 고려라는 미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에 대해 포천시 주민들을 비롯한 기관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명이라 수도권에 1등급 불이익을 주는 이번 지역분류시안을 폐기할 것’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쟁기대회를 통해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포천시민들

목회단상

기도(祈禱)

사람에게만 기도가 있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구하라는 말씀을 하신 뒤 예수는 아들과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세상 아버지도 아들이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려 하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예수는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로서 “구한다”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자식이 아버지께 물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요구도 하고 회개와 소원을 말해 줄 때 아버지는 행복감을 느끼며 동시에 보람을 갖는다. 구하는 행동과 베푸는 관계 속에서 사랑이 맺어지고 신뢰가 쌓여가기 때문이다.

기도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은 물질적인 거래(去來)가 아니다. 그것은 자식과 아버지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필수적인 행동인 것이다.

아기는 무엇이 필요할 때 우는 것으로 어머니에게 말한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런 눈물인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문제를 뜨거운 눈물로써 아뢰면 그 눈물은 하늘 아버지를 가장 기

쁘게 하는 사람의 표현이 된다. 지금부터 23~4년전 육중에 있던 문동환 목사의 아홉살 딸이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막둥이 딸 에이미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된 일이 있었다. “에이미야, 나의 생일에 아빠가 감옥에서 나와와 집에 돌아오시기를 바랐는데 이번 생일도 나는 쓸쓸하게 보냈다. 에이미야, 나는 하늘 아버지께 부탁드릴테니 너는 너의 아버지에게 부탁드려 아빠가 집에 돌아오시도록 해주지 않겠나?”

이 소녀의 편지에는 아빠에 대한 사랑과 하늘 아버지께 향한 신뢰가 듬뿍 담겨 있다. 이런 깨끗한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증을 주셨다. 마태복음 7장3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고 말씀해 주신다.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수도권정책 분과협의회가 주최한 포천시 발전비전과 전략 세미나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수도권정책 분과협의회가 주최한 포천시 발전비전과 전략 세미나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포천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정재호 경기도기술공사 도시계획부 전무는 ‘포천시의 성장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포천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으로 풍부한 관광자원과 개발가능성을 가지고 있

으면서도 수도권 규제정책 등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포천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발 가능성을 집약적으로 개발하고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운국 포천시장, 포천시의회 김중현 산업건설위원장, 한태호 기획감사담당관, 경동기술공사 정재호 전무, 국토연구원 열영민 책임연구원, 아주대학교 김영래 교수, 대진대학교 배기목 기

투자개발 촉진 환경조성 조성해야

포천시 발전 비전과 전략 토론회 개최

획처장, 이상훈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서연미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포천시 지역발전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대진대학교 배기목 기획처장이 진행을 맡고, 정책화 전략의 포천시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발표 이후 각 패널들의 의견제시 순으로 진행되었다.

열영민 연구원은 포천시의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두천시, 연천군 등 인근 시군과의 공동 대응 방안과 교통, 건강, 친환경의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제시했다.

한태호 기획감사담당관은 포천이 가진 입지적 잠재력과 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한 토지

이용 규제, 군부대/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정주 및 기업 투자기피, 광역교통망 미구축으로 인한 접근성 약화 등이 포천지역에 침체현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역분류 시안에서 포천, 연천, 동두천 등 대표적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과 같은 광역시와 동일하게 ‘성장지역’으로 분류한 시안 제정토를 요구했다.

한편 아주대학교 김영래 교수는 대진대학교 등 관내 3개 대학과 연계하는 관학사업의 구체적인 실현

을 제안했다.

그밖에 대진대학교 배기목 기획처장은 포천시 상습 교통체증 지역인 하송우리, 부인터 사거리에 입체교차로 개설을, 이상훈 교수는 경기북부의 지역현안 연구를 위한 ‘경기북부발전연구소(가칭)’ 설립을 각각 제안했다.

박운국 시장은 포천시가 인구35만명의 자족형 고품격 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포천신도시 사업 등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 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송환 기자 forme65@paran.com

영세소형공장 소방검사시 친절우선 당부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장 영세소형공장 방문

류소현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장은 10월9일 오후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영세소형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영세소형공장이 타 소방서 지역보다 많은 포천시 지역의 실태 파악과 정책추진을 위하여 실시했으며 관계자 등에게 공장내 외국인 기술사의 화재예방 철저 당부 및 외국인 기술사의 화재 사례 등을 교육했다.

이어서 이보형 포천소방서장의 안내를 받아 포천시 지역의 영세소형공장 밀집 지역을 순시하고 추진



중인 영세소형공장 소방검사시 민원 친절 우선과 누락되는 공장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포천소방서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독거노인 위한 기금마련 바자회

대한적십자사 솔모루봉사회 회원 앞장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솔모루봉사회(회장 김경복)는 10월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사내에서 독거노인 위한 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자회는 솔모루봉사회가 지난 7년전부터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돌보는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솔모루봉사회는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13가구를 대상으로 매일 2회씩 방문해 반찬 57지를 준비해 2주일동안 먹을 수 있도록 돌보고 있다.

이날 바자회에는 순대, 국수, 부침개, 떡볶이 등 판매를 통해 수익금 50만원을 모아 올 겨울에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볼 계획이다.

45명의 회원을 이끌고 있는 김경복 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솔모루봉사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단체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솔모루봉사회는 매일 2,34



중 5~6명의 회원이 자원원을 방문하여 20여명의 노인을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일동병원에 있는 환자와 종이접기를 하고 김밥을 만드는 등 갑작스런 사고로 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한다. 김경복 기자 best114@paran.com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②

침해 토지 원소유자의 소유권 주장의 문제

서희석
대법관(97.10.16)
대법관



북한 정권은 해방 이후 정권 유지의 한 수단으로서 또 사회주의 이념의 완성을 위하여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지주들이 토지를 몰수당하고 월납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침해 토지의 원소유자의 소유권 주장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구토지 소유권자들의 토지 소유권 반환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에 남북통일 이전에 몇 가지 문제의 해결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한 것으로는 다음의 문제들이 있다.

① 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 ② 반환청구권의 인정시 해당 토지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북한 주민의 연고권 내지 정착권의 해결 문제 ③ 해당 토지에 관공서, 도로 또는 항만 등 공공시설이나 집단 주거지나 시가지 등이 임치하였을 경우의 보상 문제 ④ 앞의 보상의 보상의 토지 평가의 기준 ⑤ 소유권 분쟁시 그 분쟁의 조정권자의 결정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너무나 많은 사항들에 관계되기 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은 내리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도 이해 당사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상속권자의 남북 이산, 273세대 간의 분쟁, 재혼·중혼으로 인한 상속권 귀속의 분쟁, 토지 문서상의 소유권과 사실

상의 소유권의 불일치시의 분쟁 등의 조정에 있어서도 중요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북한 현주민의 토지 이용권 보호의 문제

통일의 토지 소유권 분쟁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이 원소유자와 현 이용자 사이의 소유권 분쟁이다. 통일 후 반환이나 보상을 받게 된 원소유자와 달리 일시에 장기간 사용하였던 건물이나 토지 등을 잃게 된 선의의 피해자인 동독 주민들은 통일 후 사회 불만의 요소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통일 독일 정부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통일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의하여야만 하는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토지의 이용자인 북한 주민의 토지 이용권 보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 지역 토지 투기와 토지 비축 필요성의 문제

남북한 간의 통일시 많은 북한 주민이 남한 지역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도시의 문제 특히 주택, 실업 등이 새로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열악한 북한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와 기업과 개인의 투자 행위는 일찍이 남한 지역에 서 야기되었던 토지 투기, 부동산 투기 행위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또한 북한 지역의 개발·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공공사업이 시행되어지고 이에 따른 토지 수요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한 토지 재원 마련과 토지 비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문제

통일 한국의 영토인 토지는 221,612 km로 한반도와 3,900여 개의 부속도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중 남한이 전체의 45%인 99,392km 이고 북한이 122,220km이다. 그러나 남북한 국민은 현재 7,040만으로 한반도의 인구밀도는 약 318명/km로 추정되며 통계청의 인구에 대한 예측도와 각종의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남북통일 완성이 기대되어지는 2010년(?)에 통일 한국의 영토가 간척사업에 의한 매립토지의 증가 이외에 토지의 증가는 불가능하므로 222,000 km가 예상된다. 이에 반해 통일 한국의 국민수는 7,500만으로 인구밀도는 약 338명/km로 추정되어 한정된 영토에 비해 과다한 인구의 밀집으로 토지의 부족이 예상된다. 게다가 자본주의적 소유형태를 띠고 있는 남한과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를 띠고 있는 북한이 각각 토지의 불균형적 이용과 내부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점과 토지의 특수성 즉 다른 재화와는 달리 양적인 유한성과 위치의 부동성, 공간의 영속성, 부대처성, 토지가 격 내지 가치의 우발성, 한정된 지표에 대한 토지 소유의 독점성 등으로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제도적 법적 장치의 마련이 통일 한국의 토지제도의 중심적 문제로 제기된다.

인터뷰

묘포지 토랑개량사업·관정사업 공적 인정

한국양묘협회 경기도지부장 4년 활동 돋보여

경기농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제14회 농어민대상 수상자로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임업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양묘협회 경기도지부 안상남(71·사진)지부장이 선정됐다.

안 지부장은 10개 부문 중 임업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안 지부장은 한국양묘협회 회원으로서 25년간 묘목수급을 위해 본업에 충실했으며 양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묘포지 토랑개량사업, 관정사업, 간이온실시설 등의 사업을 꾸준히 실행해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현재 알고 있는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나은 기술 확보를 위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꾸준히 참여했으며 좀 더 나은 품질의 우량한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지부장은 수상자로 결정되자 “농사만 한평생 짓고 살아왔는데 농어민대상 수상자로 인정 해주니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히고 “더욱 정성스럽게 묘목을 관리해 우량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부장은 2006년도에 북한 나무심기의 묘목수급 대상으로 지정되어 잣나무 등 우량한 묘목을 생산해 북한의 녹화사업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현재 1만5천평의 부지에서 묘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아들이 대를 이어 양묘 산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하나씩 기술을 전수해 나가고 있다.

안 지부장은 포천시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양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해오던 것

을 앞으로 더욱 잘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지부장은 특히 매년 조림사업시 우량한 묘목의 묘목을 생산하여 보급하여 조림지 활용을 높임으로서 산림자원조성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한편, 제14회 경기도 농어민대상은 ▶고품질 쌀 생산 부문 이 상용(53,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과수·화훼 부문 강봉섭(54, 평택시 서탄면 수월안리) ▶채소 부문 이종익(50, 남양주시 건전읍 신원리) ▶특작·가공 부문 (주)늘푸른(대표 안상남, 48,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수출농업 부문 박찬규(44, 여주군 흥천면 대대리) ▶환경농업·신기술 부문 김상설(61, 안성시 미양면 신기리) ▶대가족 부문 안래연(51,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중·소가족 부문 이만형(44, 광주시 초월읍 학



안 상 남 농어민대상 수상자

동리) ▶수산 부문 김봉희(45, 파주시 적성면 구유리) ▶임업 부문 안상남(69,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씨가 선정됐다.

농어민대상은 경기도가 지난 1994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 과수·화훼, 수산, 임업 등 각 분야 최고 권위자에게 주어져 왔으며 열심히 일하는 농어업인이라면 한 번쯤은 꿈꾸어 온 상으로서 그동안 농업 분야 최고의 상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25일 농업인의 날 행사시 표창장을 수여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